

## 농산물유통경로에서 환경의 풍요성과 관계적 규범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金 受 顯\*

### 목 차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 II.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 III. 연구방법
- IV.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
- V. 결론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우리가 농산물유통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특성, 유통환경, 경로구조, 생산자와 중간상인들의 행동양식, 그리고 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역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운데 특히 채소류의 유통은 농업 및 농산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산, 소비, 그리고 시장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공산품유통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일반화하여 다루기는 매우 어려워 채소유통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산물유통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유통시장개방, 고소득 예상작물에 대한 생산집중 등으로 인해 외국 농산물과 경쟁은 물론 국내 생산자간 및 중간상인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유형이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신선한 채소의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선도가 요청되는 채소류는 작목반<sup>1)</sup>을 통

\* 농협대학 교수

1) 농산물의 소규모유통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부락 혹은 주산지별로 동일품목의 생산자들이 생산자체의 공동구입에서부터 협동생산, 그리고 공동출하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의 하부조직이다.

하여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공동출하되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과정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상관행이 답습되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도매시장 거래과정에서 생산자들은 중간상인들의 경락가격과 등급조작에 대한 의심, 각종 거래조건 결정에 생산자 의견의 미반영에 따른 불만, 중간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통정보 등이 중간상인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간상인들도 생산자들에 대하여 중량 및 규격미달 상품출하, 포장내 상품 속이기, 단기적인 가격차이에 너무 민감하여 출하처를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 등에서 생산자를 불신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중간상인이 생산자를 믿지 못할 때 높은 값을 주지 못하며, 생산자는 중간상인을 불신하여 단골로 출하하지 못하고 단속적인 거래를 계속하는 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농산물유통에 내재한 문제점과 환경의 변화는 농산물 유통연구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연구는 대부분 공급, 수요, 가격등 경제학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 효용과 비용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통경로 연구도 도매시장, 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활성화, 경로단계별 유통마진 감소, 중간상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그리고 물적유통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생산자와 중간상인의 행동적인 측면 및 경로환경이 이들의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채소류 유통가운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설오이<sup>2)</sup>를 중심으로 유통경로상의 환경 및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행동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경로상에서 수요환경의 풍요성이 농산물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와 함께 관계적 규범의 하부차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한다.

둘째, 관계적 규범의 각 차원이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셋째, 부수적으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시설오이는 철골, 플라스틱, 나무, 비닐 혹은 유리등의 자재를 사용한 재배시설을 경작지에 설치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성장을 촉진 혹은 자연시킴으로써 연중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오이이다.

## 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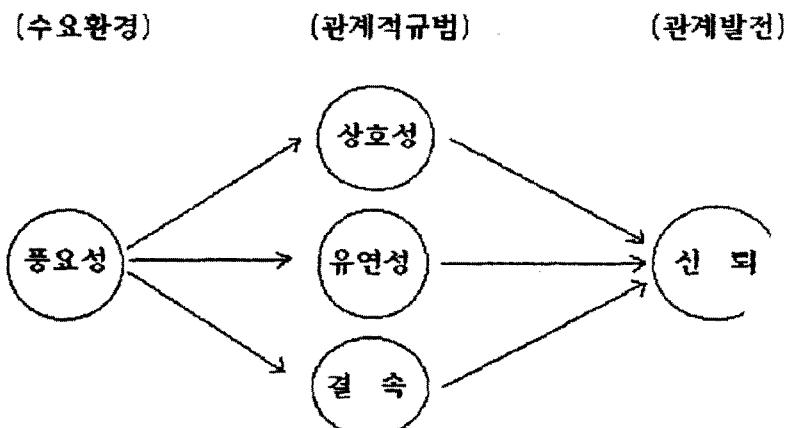
우리나라 농산물유통환경은 근래 급격한 변화속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요부문에서 신선채소류의 소비증가는 두드러지며,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확대, 고소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생산집중 등은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로상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설오이 생산자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산지농협을 통하여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공동출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의 거래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존의 상관습이 지배되고 있어 관계적 규범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거래관계는 불신이 자리잡아 왔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 신뢰회복은 우리나라 농산물유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때,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오이 생산자와 도매시장의 중간상인을 둘러싼 경로환경 중에서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이 이들 쌍방의 관계적 규범의 하부 차원인 상호성, 유연성, 그리고 결속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적 규범의 각 차원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이들 변수의 영향 관계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기존연구의 검토

### (1) 환경의 풍요성

환경(environment)은 일반적으로 조직밖에 존재하면서 조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체적인 것으로(Jurkovich 1974), 혹은 조직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 보아 왔다(Aldrich 1979). 조직과 관련된 환경의 차원 혹은 범위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별되어 왔다. Pfeffer and Salancik(1978)은 자원의존 관점에서 환경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지각이나 해석을 통하여 규정됨으로써 조직에 알려진다고 보았다. 그들은 환경의 풍요성을 주요자원의 이용가능성 혹은 빈약함(availability or scarcity of critical resource)으로 정의하였다. 자원의존이론에서 환경은 자원의 축적으로서의 환경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원천인 환경의 풍요성도 자원의 흐름으로 본다.

환경이 자원의 접적이라는 관점은 시스템의 성장에 중요한 자원의 풍요성 혹은 빈약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Dwyer and Oh 1987). 유통경로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환경특성보다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경로구조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Dwyer and Welsh(1985), Dwyer and Oh(1987), 그리고 Oh, Dwyer, and Dahlstrom(1992) 등의 연구가 환경의 풍요성이 경로내부의 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Dwyer and Welsh(1985)는 경로관계에서 외부조건들을 내부정치경제에 대한 기회와 제약으로 보았다. 즉, 경로에서 빈약하거나 풍요한 환경은 교환상대방에게 정보과정과 의존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요부문 환경의 불안정성은 통합된 경로구조에 대한 공급자의 통제를 촉진시키는 반면, 이질적인 환경은 분권적이고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wyer and Oh(1987)는 유통경로상에서 불균형적인 힘의 구조를 가정한 미국의 자동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풍요한 시장은 풍부한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경쟁과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빈약한 시장의 딜러에 비하여 공급자의 관료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상을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결과 풍요성은 공급자들이 딜러와 관계에서 집중화 및 공식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급자들이 풍요한 소비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핵심지위에 있는 딜러들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관료적인 통제수단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Oh, Dwyer, and Dahlstrom(1992)은 유통경로 시스템의 불균형적인 힘의 구조하에서 환경의 풍요성과 동태성이 협상과정에서 경로당사자의 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연구결과 수요시장의 풍요성은 판매자에게 딜러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자의 의존 증가는 초기의 힘

의 구조적인 이점을 감소시키고 쌍방간의 힘의 구조를 털려측으로 이동시켜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관계적 규범

Macneil(1980)은 교환의 유형을 단속적 거래와 관계적 교환의 연속선상에서 분류하고, 관계적 교환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상의 이익과 분담을 나누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동태적 교환으로 정의하였다. 단속적 거래와 관계적 교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인 계약규범의 존재여부이다 (Kaufmann and Stern 1988). 그는 규범을 기대되는 행동의 내용에 따라 단속적 규범(discrete norm)과 관계적 규범(relational norm)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단속적 규범은 교환 당사자간의 개인적, 경쟁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며, 교환당사자들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개인 목표달성을 방향으로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반대로 관계적 규범은 이해의 상호성(mutuality of interest)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관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

근래 유통경로 구성원의 관계는 경로환경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힘의 행사보다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구축과 호혜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관계적 규범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단속적 거래보다 장기적인 공동노력과 협력을 강조하는 관계적 교환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Dwyer, Schurr, and Oh 1987).

관계적 규범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ufmann and Stern(1988)은 소송논쟁상황에서 세 가지 관계적 규범 즉, 결속, 역할통합, 그리고 상호성이 상대방 행동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의 영향관계가 강할수록 상대방의 행동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hrol(1991)은 현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소용돌이 과업환경에 마케팅시스템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범주도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케팅시스템에서 규범이 주도 되기 위해서는 편의과 부담의 공유,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내부문화 형성, 상호성에 바탕을 둔 관계결속, 그리고 집단성과에 관련되는 신뢰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Heide and John(1992)은 거래비용이론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조직간 효율적인 관계형성에 있어서 관계적 규범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관계적 규범의 특성으로 첫째, 관계적 규범은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둘째, 이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지향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셋째, 이것은 조직간 특정 행동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관계적 규범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Kaufmann and Stern(1988)은 관계적 규범을 결속, 역할통합, 그리고 상호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Noordewier, John, and

Nevin(1990)은 유연성, 공급자 자원,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공급자의 통제, 그리고 계속성에 대한 기대 등 다섯 가지로 차원화하였다. 이와같이 관계적 규범을 다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관계에 대한 연구주제의 인식이나 연구대상 산업의 특성 혹은 연구자들의 관계적 규범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규범은 모든 관계에서 동일할 수는 없으며 경로구성원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여,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업무에 따라 특정 행동이 요구될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쌍방이 공정하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래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적 규범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자율조정장치의 역할을 하며, 강자가 힘의 남용을 방지하고 거래특유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Heide and John 1992). 여기서 수요환경의 풍요성은 쌍방의 힘의 불균형구조를 변화시키게되고 균형된 힘 구조하에서 쌍방은 협력적이 되어 관계적 규범은 더 잘 지켜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Oh, Dwyer, and Dahlstrom 1992).

### (3) 신뢰

유통경로내 당사자간 지속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신뢰는 힘과 정당성, 그리고 규범에 관한 연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Dwyer, Schurr, and Oh 1987). 신뢰는 유통경로 연구에서 관계결속의 태도적 차원으로서 관료적 구조화변수(Dwyer and Oh 1987)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힘과 신뢰(Anderson and Weitz 1990), 통제와 신뢰(Shapiro 1987)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Dwyer and Oh(1987)는 신뢰를 교환관계의 일방이 상대방에서 조정을 원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자기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교환관계에서 직접적인 경험과 행동적 상호작용이 신뢰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Zand 1972). 또한 신뢰는 확신을 가진 교환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동시적인 믿음이 없는 의존은 신뢰라고 하기 보다는 힘과 통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Moorman, Deshpandé and Zaltman 1993).

유통경로 연구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erson and Narus(1990)는 신뢰를 경로구성원이 상대방을 자신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예기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았다. Young and Wilkinson(1989)은 경로쌍방이 협력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념으로 신뢰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유통경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는 경로구성원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과 신뢰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신뢰가 경로에서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협력과 결속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Schurr and Ozanne(1985)는 산업재구매상황 연구에서 신뢰에 대한 구

매자들의 기대는 공급자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즉, 신뢰가 적으면 구매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덜 호의적인 태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신뢰가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조, 목표의 명확화, 정보교환 및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결속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한편 Moorman, Deshpandé, and Zaltman(1993)은 마케팅조사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조직문화(조직에서 행동에 규범을 제공하는 공유가치와 신념)형태 중에서 가족형조직(clans)과 위원회식조직(adhocracies)은 그 규범이 성공적인 관계유지, 가족적인 분위기, 관용, 유연성,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적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더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료적 조직분위기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 그리고 경직된 의사소통 때문에 조정과 상호성 및 결속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환 상대방에게 유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 3. 연구가설 설정

#### (1) 환경의 풍요성과 관계적 규범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시장은 불공정한 유통환경과 그동안 답습되어온 상관행들로 인하여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 관계적 규범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중간 상인들의 불법적인 개별위탁행위, 출하단계에서 규격화 및 포장미흡, 대량일시출하에 따른 물량폭증, 편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 정부의 도매시장에 대한 통제력 미흡, 그리고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도매시장의 운영 등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오이를 비롯한 과실과 포장채소류 21개 품목에 대하여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에 상장경매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정부가 상장경매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개별위탁상의 비공개적인 위탁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공개경쟁에 의한 공정가격 형성, 선별과 등급화 및 규격포장으로 산지유통개선과 상품의 고급화 추진,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유통비용절감 등의 필요성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경매제도가 비록 최선의 거래방법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운용여하에 따라 농산물유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정부는 경매실시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계에서 공동출하 확대와 상품성제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규범과 상관습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만호 1993).

그런데 농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면서 기상조건등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데 반하여 소비는 연중 안정적이다.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선채소류에 대한시장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생산자에 대한 중간상인의 의존은 높아질 것이며 중간상인은 수집과 중계 및 분산과정에서 불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과다한 개별적 이윤추구를 자제하고 생산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시설채소류, 특히 시설오이는 농산물 중 비교적 높은 생산기술과 시설 및 자본투자가 요구되므로 쉽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중간상인과 비교적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농산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매해 줄 중간상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쌍방은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요환경의 풍요성은 경로당사자들 상호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권한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규정과 절차에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쌍방의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이 유통경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통경로에서 관계적 규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 농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중간상인 사이의 유통경로상에서 생산자가 지각하는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은 양자간의 관계적 규범 중에서

가설 1- 1 : 상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2 :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3 :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관계적 규범과 신뢰

그동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산자가 중간상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수가 적을 경우 중도매간 경쟁저위로 낮은 경락가격 형성의 가능성, 생산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매사의 수지식 호가방식, 생산자가 품질과 등급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의 가격이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차이발생, 생산자가 출하시 검근한 상품의 중량이 경매시 검근중량과 차이, 생산자의 자기상품에 대한 등급인식과 중도매인의 등급매김의 상이, 집중출하시 가격후려치기(매우 낮은 가격으로 경락), 경매참가 중도매인 사이 또는 중도매인과 경매사의 사전담합에 대한 우려, 경매사의 불공정경락 가능성, 도매시장의 거래조건(하역수수료, 상장수수료, 경매순서, 경매시간 등)결정에 생산자 의견 미반영, 중간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통정보(판매처, 판매량, 판매시기 및 판매방법) 등이 생산자가 중간상인을 불신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설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간상인의 비호혜적인 태도(즉,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별적 이익추구)는 관계적 교환규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경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조직이므로 여기에는 상호간에 어떤 규범이 자리잡게 된다. 이 규범은 상호간 행동에 대한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이끌어내게 된다. 또한 경로구성원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안에서 상호조정과 규칙을 통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박종희 1991).

이와같은 맥락에서, Macneil(1980)의 관계적 규범은 유통경로상에서 거래의 계속성에 대한 일종의 약속을 의미하며(Dwyer, Schurr, and Oh 1987), 경로시스템을 유지하고 개별목표 추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Heide and John 1992). 이는 곧 관계적 규범이 개발되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높아지고(John 1984), 여기에 바탕을 둔 경로당사자 사이의 신뢰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유통경로상에서 쌍방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또한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상호경험과 행동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하여 협력과 계약에 대한 쌍방의 기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Dwyer, Schurr, and Oh 1987).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앞에서 논의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 신뢰와 관련된 실증연구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계적 규범과 신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 가설 2 : 농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중간상인 사이의 유통경로상에서 양자간의 관계적 규범 중

가설 2 - 1 : 상호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2 : 유연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3 : 결속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변수들은 다항목으로 측정되고 측정스케일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다.

환경의 풍요성은 생산자가 지각하는 수요부문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회와 주요 자원의 풍부함의 정도로 정의한다. 수요환경의 풍요성에 대한 측정은 Dwyer and Oh(1987)가 이용한 측정항목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현실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은 지난 3년간 소비증가의 정도, 앞으로 3년간 수익성에 대한 예상, 앞으로 3년간 시장성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소비증가에 대한 예상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관계적 규범은 Kaufmann and Stern(1988)과 Noordewier, John, and Nevin(1990)의 관계적 규범의 하부차원 중에서 상호성, 유연성, 그리고 결속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상호성은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과 부담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배분으로 정의한다. 상호성이 높은 관계에서 교환당사자들은 관계기여도에 상응하는 편의과 부담을 받는다고 느낀다. 단속적 거래는 편의과 부담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관계적 교환에서는 이 것이 공유되며 장기에 걸쳐 평가된다. 상호성의 측정항목은 출하처와 상호 공정한 대우, 출하처에 대한 협조와 이득의 비례성, 장기적인 상호 균형성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우호적으로 적응할 것이라는 쌍방의 기대로 정의한다. 관계적 교환에서는 거래조건과 역할설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미래의 거래를 계획한다. 즉, 유연성은 환경이 변화할 때 상대방이 거래방침을 갑자기 바꾸어도 본인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측정항목은 어려운 거래 상황에서 참을성, 기존의 약속사항에 대한 양보, 그리고 기존의 출하조건 변경 등 세 가지이다.

결속은 관계의 지속자체가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마음속에 자리잡는 정도로 정의한다. 결속은 상대방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결속의 측정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 평소 협조적인 관계, 그리고 동반자관계를 중요시하는 정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뢰는 Schurr and Ozanne(1985)의 정의에 따라 교환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약속을 믿을 만하고 상대방이 그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한다. 신뢰의 측정항목은 Sullivan and Peterson(1982)이 개발하고 Dwyer and Oh(1987)가 정리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농산물 생산자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측정은 출하처의 진실성, 출하처를 조심할 필요성, 출하처와 긴밀한 관계를 원함, 출하처의 제안에 대한 믿음, 출하처의 요구사항을 수용, 출하처와 대등한 관계라는 의식, 출하처가 긴밀한 관계를 기대함, 출하처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출하처와 의견일치 등 아홉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2. 연구대상 농산물 선정

1970년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시설오이는 국민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형 농산물이다. 시설오이는 노동의 계절적 집중화나 토지이용률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의 확대와 균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산이 권장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설오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채소중의 한 품목이며 시설채소류 중에서 표준소득이 제일 높다(농촌진흥청 1993). 시설오이 생산지는 전국에 걸쳐 단지화되어 있으며 작목반이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어 공동출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시설오이는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되는 양이 많아 유통경로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짧으며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1991년 7월 1일부터 상장경매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시설오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인 우리나라 채소류 유통문제 분석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른 농산물유통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3.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토대로 현장면접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항목의 내용과 용어를 정화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여 1993년 8월중에 강원도 춘천농협과 경기도 구리 및 신도농협을 방문하여 유통담당자의 안내로 시설오이 재배지를 방문하였다. 가구주(작목반원)를 만나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공식적인 대화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설문내용 및 용어를 수정하였다. 같은 기간에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농협공판장을 방문하여 시설오이 출하 및 경매과정을 참관하고 경매사, 중도매인, 그리고 공판장 책임자에게 시설오이를 포함한 채소류 유통실태와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농협대학에서 실시한 시설채소 생산기술교육과정에 참가한 시설오이 생산자 23명에게 1993년 9월 8일과 14일 2회에 걸쳐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과 심층면접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4. 표본 선정

표본프레임은 시설오이 주산단지의 생산농가와 농협대학에서 실시한 시설채소 생산기술교육과정 수료자중에서 시설오이 생산자로 구성된다.

표본프레임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농촌진흥청의 「'92 주요채소의 작황별 생산과 수익성 비교」와 농림수산부의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 고시」, 농림수산부고시 제 92-35 등을 참고하여 전국의 시설오이 생산·출하 및 주산단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농협중앙회의 「작목반총람」과 「'92 농산물 출하가능량 조사자료」, 그리고 농협대학부설 새농민기술대학의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시설채소 생산기술교육 수료자현황」 등을 이용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농협대학의 시설채소 생산기술교육과정에 참가한 시설오이 생산자의 주소, 성명, 그리고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생산자 365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의 「'92년 농산물 출하가능량 조사자료」에 의거 전국의 시설오이 주산지에 있는 농협 가운데 재배면적 및 출하가능량이 큰 지역 순으로 30개 농협을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농협의 조합장과 유통담당 책임자들에게 각각 전화로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여 < 표 1 >과 같이 27개 농협에서 490명을 조사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25부이며 회수율은 49.7% (425/855)이다. 그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편중을 보이는 것과 무응답 항목이 많아 연구대상으로 부적합한 34부는 제외하고 391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lt; 표 1 &gt; 산지농협별 설문조사 대상농가의 시도별분포

시도별	산지농협 이름과 설문대상 생산자수
경 기	송탄(20명), 연서(15명), 안중(20명), 홍천(10명), 서부(5명)
강 원	춘천(20명), 신북(20명), 신동(10명), 화천(20명)
충 북	불정(10명)
충 남	이인(20명), 임천(20명)
전 남	별교(20명), 성전(20명), 광양중부(20명), 서면(20명), 구례(20명), 포두(30명)
광 주	평동(20명), 광주원협(10명)
경 북	군위(10명)
경 남	대곡(30명), 동부(20명), 남지(30명), 대산(20명), 철서(10명),
부 산	구포(20명)

#### IV.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

##### 1. 표본의 특성

설문응답에 나타난 표본의 특성 중에서 먼저 출하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0.3%는 단골출하처가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단골출하처를 1개처로 응답한 숫자가 5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개처를 둔 응답자는 22.4%이며, 1개처와 2개처를 합하면 79.7%이다. 단골출하처와 평균거래기간은 5.4년이며, 3년에서 5년 사이가 39.4%로 제일 많고, 2년이하는 25.2%, 그리고 10년이상도 17.8%를 차지한다. 여기서 시설오이 생산자와 중간상인은 비교적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관계 관리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관계발전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시설오이 평균 재배경력은 9.1년으로 대체로 오랜 기간 재배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년 재배경력자가 39.2%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11년 이상이 29.6%, 3-5년이 27.5%이며, 2년이하는 3.6%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시설오이 재배는 비교적 고도의 생산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많은 시설 및 자본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시설오이 농사는 쉽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5세로 나타났다. 시설오이 생산자는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40.8%), 30대가 27.2%, 50대가 26.5%이고, 20대는 거의 없다(1.0%). 이것은 시설오이 재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재배경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50대 이상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의 노동력부족 문제와 함께 영농후계자 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 2.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 (1) 신뢰성 검토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개별 측정항목이 개념을 어느정도 일관성있게 측정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측정에서 측정오차가 많을수록 그 만큼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탐색적 연구에서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각 변수의 최초 측정항목수와 이를 정화한 최종항목수 및 Cronbach's  $\alpha$  값은 <표 2>와 같다.

< 표 2 > 측정항목의 신뢰성 분석결과

변 수	최초항목수	최종항목수	$\alpha$ 값
풍 요 성	4	4	.6630
관계적 규범			
상 호 성	3	3	.7251
유 연 성	3	2	.5299
결 속	3	3	.7868
신 뢰	9	5	.7283

표에서 유연성( $\alpha=.5299$ )을 제외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alpha$  값은 0.6이상이므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이 탐색적 연구임을 감안하면 유연성도 일단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신뢰성검토에서 각 변수들의 제거된 측정항목은 유연성에서 기존의 출하조건의 변경 항목이며, 신뢰에서는 출하처와 긴밀한 관계를 원함, 출하처의 제안에 대한 믿음, 출하처의 요구사항을 수용, 그리고 출하처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등이다.

### (2)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는 각 측정항목이 해당 변수를 어느정도 타당하게 측정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관계적 규범의 세 가지 하부차원에 대하여 주요인분석을 통하여 상호성, 유연성, 그리고 결속이 각각 의도한대로 묶이는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관계적 규범의 신뢰성 검토결과의 최종항목에 대하여 주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당초 의도대로 관계적 규범은 상호성, 유연성, 그리고 결속의 세 가지 차원으로 묶이고 있다. 주요인분석 결과 관계적 규범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세 가지 요인들의 설명력은 67.1%이다.

&lt; 표 3 &gt; 관계적 규범의 주요인 분석결과

측정항목	VARIMAX로 회전된 요인 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MUTU 1	.13302	<u>.83685</u>	- .06942
MUTU 2	.14444	<u>.83659</u>	- .07308
MUTU 3	.00209	<u>.66815</u>	.27262
FLEX 1	.06147	- .04047	<u>.89125</u>
FLEX 2	.38577	.12485	<u>.63605</u>
SOLI 1	<u>.85932</u>	- .02025	.08929
SOLI 2	<u>.83664</u>	.13419	.12526
SOLI 3	.70754	.17571	.15467
고유근	2.74415	1.61099	1.01914
분산비	34.3	20.1	12.7

MUTU ; 상호성, FLEX ; 유연성, SOLI ; 결속

### 3.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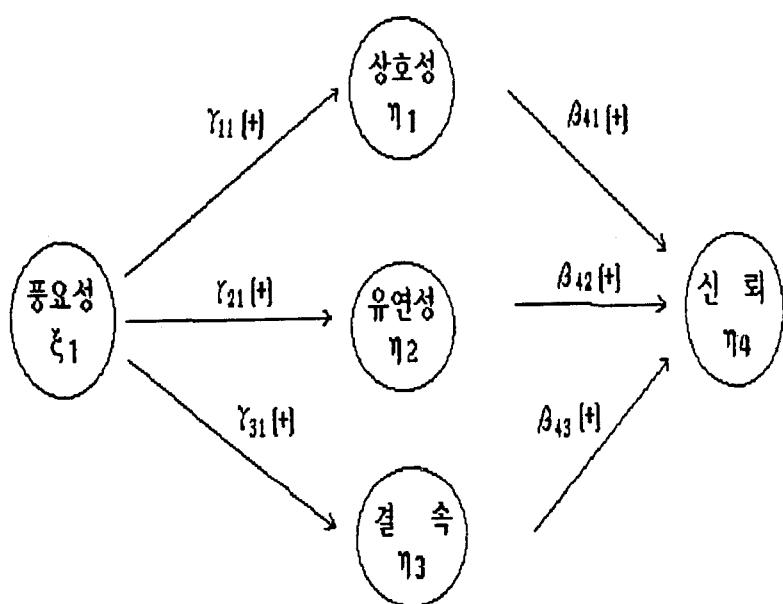
공분산구조분석은 변수의 측정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모형검증과 함께 할 수 있고, 다항목으로 측정한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검토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계수추정에 의한 이론적인 가설검증을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모형의 개선을 시도한다.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유효한 표본의 수효는 346개이므로 충분하며 (Boomsma 1982 ; Anderson and Gerbing 1984), 계수추정을 위한 ML법 사용에도 무리가 없다(Bagozzi 1991). 변수의 측정단위가 5점 등간척도이므로 공분산구조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는 상관자료를 사용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PC용 LISREL7.16(Jöreskog and Sörbom 1988)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에 가설적 방향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것은 환경의 풍요성( $\xi_1$ )이 관계적 규범의 세 가지 하부차원인 상호성( $\eta_1$ ), 유연성( $\eta_2$ ), 그리고 결속( $\eta_3$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세 가지 매개변수는 신뢰( $\eta_4$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이다.

연구모형에 상관자료를 입력하여 산출한 계수추정치는 <표 4>와 같다. 이 표는 각 가설경로에 대하여 ML법에 의한 경로계수추정치와  $t$ 값( $t$ 값=경로계수/표준오차)을 보여주고 있다.  $B$ 와  $\Gamma$ 의 각 계수는 이론적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이고  $A_y$ 와  $A_x$ 는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다. 여섯 가지 가설들 중 네 가지가  $t$ 값이 2.000 이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모든 경로계수들은 모두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적이다. 이것은 이론변수를 다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수렴타당성도 확보됨을 보여준다.

< 그림 2> 연구모형과 가설적 방향



&lt; 표 4 &gt; 연구모형에 대한 계수추정치

계 수	계 수 추 정 치		표 준 오 차	t 값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beta_{41}$	.645	.704	.070	9.165
$\beta_{42}$	.133	.073	.109	1.224
$\beta_{43}$	.219	.230	.057	3.841
$\Gamma$ $\gamma_{11}$	.156	.193	.056	2.772
$\gamma_{21}$	.016	.040	.037	.447
$\gamma_{31}$	.161	.207	.054	2.955
$\Psi$ $\xi_1$	.629	.963	.083	7.540
$\xi_2$	.163	.998	.246	.665
$\xi_3$	.577	.957	.081	7.114
$\xi_4$	.236	.432	.048	4.927
$\Lambda_y$ $\lambda_{11}$ (MUTU1)	1.000 <sup>a</sup>	.808	-	-
$\lambda_{21}$ (MUTU2)	.913	.738	.082	11.102
$\lambda_{31}$ (MUTU3)	.589	.476	.075	7.829
$\lambda_{42}$ (FLEX 1)	1.000 <sup>a</sup>	.404	-	-
$\lambda_{52}$ (FLEX 2)	2.169	.877	3.228	.672
$\lambda_{63}$ (SOLI 1)	1.000 <sup>a</sup>	.777	-	-
$\lambda_{73}$ (SOLI 2)	1.015	.788	.093	10.875
$\lambda_{83}$ (SOLI 3)	.817	.635	.081	10.139
$\lambda_{94}$ (TRUS 1)	1.000 <sup>a</sup>	.740	-	-
$\lambda_{104}$ (TRUS 2)	.622	.460	.083	7.466
$\lambda_{114}$ (TRUS 3)	.788	.583	.085	9.297
$\lambda_{124}$ (TRUS 4)	.631	.467	.083	7.567
$\lambda_{134}$ (TRUS 5)	.736	.544	.084	8.743
$\Lambda_x$ $\lambda_{11}$ (MUNI 1)	.383	.383	.060	6.335
$\lambda_{21}$ (MUNI 2)	.503	.503	.060	8.407
$\lambda_{31}$ (MUNI 3)	.800 <sup>a</sup>	.800	-	-
$\lambda_{41}$ (MUNI 4)	.592	.592	.060	9.873

<sup>a</sup> 초기값을 고정시킴.

t 값 ≥ 2,000이면 유의적임.

MUTU ; 상호성, FLEX ; 유연성, SOLI ; 결속, TRUS ; 신뢰, MUNI ; 풍요성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2 = 286.46 \quad (df = 114) \quad p = .000, \quad GFI = .912, \quad AGFI = .883, \quad RMR = .092$$

여기서 RMR은 평가기준(.05이하)을 벗어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p값이다.  $\chi^2$ 값과 자유도가 크더라도 p값이 비교적 작을 경우가 있는데( $p < .05$ ), 그 원인은 모형이 잘못되거나 혹은 모형검증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James, Mulaik, and Brett 1982 ; Dwyer and Oh 1987).

모형검증의 조건이 대체로 충족된 상태에서 모형이 큰 자료(본 논문에서는 표본이 346개)에 적용시켰을 경우,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hi^2$ 값과 p값이 나쁘게 나타날 경우가 자주 있다(이순복 1990). 그래서  $\chi^2$ 값과 자유도를 이용한 Bentler and Bonett(1980)의  $\rho$  (Rho)를 계산해 본 결과  $\rho = .891$ 로 나타났다.  $\rho$ 를 계산하기 위한 Null Model의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는  $\chi^2(55)=817.89$  ( $p=.000$ ), GFI=.608, AGFI=.529, RMR=.232이다.  $\rho$ 는 보통 .9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Silvia(1988)의 연구에서  $\rho$ 는 나쁜 모형을 잘 기각하며 표본의 크기에 제일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부합지수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이 자료에 아주 잘 부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설 경로계수가 모두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유의적이다. 또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의 최대치는 유연성과 결속에 대한 잔여분변수가 가지는 공분산( $\psi_{32}$ )으로서 66.03이나 된다. 이 수정지수는 제약된 경로가 자유화된다면 모형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진단적 도구인데, 이것은 자유도가 하나 감소하는 모형에서  $\chi^2$ 값이 66.03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잔여분의 공분산에 대해서는 엄밀한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유연성과 결속이 모두 관계적 규범의 하부차원임을 미루어볼 때 이해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가설관계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환경의 풍요성이 상호성과 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 $\gamma_{11}=.193$ ,  $\gamma_{31}=.207$ ), 신뢰에 대해서는 결속 ( $\beta_{43}=.230$ )보다는 상호성 ( $\beta_{41}=.704$ )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초점이 이론적인 가설검증에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된 연구모형분석에 의한 가설검증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연구모형에 의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계수추정치를 정리요약한 것이 < 표 5 >이다.

< 표 5 > 연구모형 분석결과 요약

경로	가설	경로계수	t값
풍요성→상호성 ( $\gamma_{11}$ )	+	.156	2.772
풍요성→유연성 ( $\gamma_{21}$ )	+	.016	.447
풍요성→결속 ( $\gamma_{31}$ )	+	.161	2.955
상호성→신뢰 ( $\beta_{41}$ )	+	.645	9.165
유연성→신뢰 ( $\beta_{42}$ )	+	.133	1.224
결속→신뢰 ( $\beta_{43}$ )	+	.219	3.841

주) t값  $\geq 2.000$  이면 유의적임.

일단 이 표에서 다음 (1), (2)와 같이 가설검증을 정리할 수 있다.

(1) 환경의 풍요성과 관계적 규범

농산물유통경로에서 환경의 풍요성은 관계적 규범 중에서 상호성과 결속에는 유

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연성에는 비유의적이다. 즉, 환경의 풍요성이 높을수록 상호성은 높아지고( $\gamma_{11}=.156$ ,  $t=2.772$ ), 결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gamma_{31}=.161$ ,  $t=2.955$ ), 환경의 풍요성이 유연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amma_{21}=.061$ ,  $t=.447$ ). 따라서 가설 1 가운데 가설 1-1과 1-3은 지지되었고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할 수 있다.

먼저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환경의 풍요성이 관계적 규범 중에서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으며, 다음 (2)항에서 논의되는 유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못한 점이다. 이는 배정아(1994)의 관계적 규범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연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 즉, 유연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농산물유통에서 유연성이 관계적 규범의 하부차원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설오이 생산자들은 시장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익성이나 시장전망에 대하여 별로 풍요하게 지각하지 않고 있었다(5점 척도에서 평균 2.93). 이것은 농산물수입개방 및 고소득 작목인 시설오이의 생산집중으로 시장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생산자들은 관계적 규범 중에서 중간상인들과 편의 및 비용의 장기적인 균형성, 상호 공정한 대우 등에서 평소 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의 영향으로 상호성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5점 척도에서 평균 2.92). 그러나 협동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생산자의 의식을 은연중에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는 결속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5점 척도에서 3.91). 그리고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그런데로 참고 견디며 거래조건에서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생산자는 힘의 우위에 있는 중간상인에 대한 유연성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5점 척도에서 평균 3.24).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중간상인들의 불공정거래 성행, 정부의 통제력 미흡, 도매시장의 물량처리 능력부족, 생산자의 출하상태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거래질서 회복을 위하여 오이를 비롯한 채소류에 대하여 상장경매제도를 실시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추가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통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생산자단체인 농협도 작목반육성을 통한 공동출하 확대로 생산자의 협상력 강화 및 산지유통 시설 확대설치와 더불어 도매시장의 보완으로 산지 직거래 추진을 위한 집배센터 확충 등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편 중간상인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 정부의 규제, 농협의 유통활동 강화, 그리고 유통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서 시설오이 생산자가 지각하는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은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 중에서 상호성과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2) 관계적 규범과 신뢰

관계적 규범 가운데 상호성과 결속은 신뢰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연성은 신뢰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상호성이 높아 질수록 신뢰는 향상되고( $\beta_{41}=.645$ ,  $t=9.165$ ), 또한 결속이 강해 질수록 신뢰는 증가하게 된다( $\beta_{43}=.219$ ,  $t=3.841$ ). 그러나 유연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의적이지 못하다( $\beta_{21}=.133$ ,  $t=1.224$ ). 따라서 가설 2 중에서 가설 2-1과 2-3은 지지되었고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검증결과로부터 기존이론과 연구 및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현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은 그간 생산자와 중간상인간에 불신이 문제되어 왔으나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들도 유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간상인들의 생산자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설오이는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공동출하, 선별 및 규격포장 등이 다른 채소류에 비하여 비교적 잘 되고 있어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설오이 생산자는 중간상인에 대한 신뢰를 보통 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였다(5점 척도에서 평균 3.11).

Dwyer, Schurr, and Oh(1987)는 구매자-판매자 관계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탐색단계에서 규범과 기대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기대는 신뢰가 바탕이 되며(Pruitt 1981), 신뢰는 힘과 정당성 그리고 관계적 규범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관계적 규범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예측가능성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교환 쌍방간에 관계적 규범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들은 미래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농산물유통에서 관계적 규범 및 신뢰는 조직문화적 접근(Moorman, Deshpandé, and Zaltman 1993)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설검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생산자와 중간상인의 성공적인 관계유지, 가족적인 분위기, 상호 관용적인 상황적응, 그러면서도 기업가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관계적 규범의 공유가치와 신념은 경로구성원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설검증결과는 유통경로상 쌍방의 지속적인 관계발전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신뢰는 관계발전 과정에서 관계적 규범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Dwyer, Schurr, and Oh(1987)의 주장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서 시설오이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 가운데 특히 상호성은 신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속도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3) 연구모형의 수정

앞에서 연구모형이 자료에 아주 잘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형개선절차를 통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는 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 가설로 표시된 경로중에서 가설과 방향이 일치하며 유의적인 경로는 4개이며, 방향은 일치하지만 유의적이지 못한 경로( $t$ 값이 2.000이하)가 풍요성-유연성 및 유연성-신뢰의 2개 경로이다.

구조모형을 수정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유의적이지 않거나 가설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는 경로는 모형에서 제거(고정)하고, 둘째, 수정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Jöreskog and Sörbom 1988), 따라서 연구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적 규범중에서 유연성( $\gamma_2$ )을 제거한 후 새로운 수정구조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6>이다.

&lt;표 6&gt; 수정구조모형 분석결과 요약

경로	모수	가설	경로계수	$t$ 값
풍요성→상호성	$\gamma_{11}$	+	.141	2.533
풍요성→결속	$\gamma_{21}$	+	.141	2.677
상호성→신뢰	$\beta_{31}$	+	.655	8.842
결속→신뢰	$\beta_{32}$	+	.217	3.399

수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는 다음과 같다

$\chi^2 = 169.18$  ( $df = 86$ )  $p = .000$ ,  $GFI = .938$ ,  $AGFI = .914$ ,  $RMR = .055$ ,  $\rho = .919$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연구모형보다 수정모형이 자료에 더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모형과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시설오이 생산자의 지각된 수요환경의 풍요성은 관계적 규범 중에서 상호성과 결속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 관계적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오이 생산자는 시장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환경에 대하여 별로 풍요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정한 대우, 편익과 부담의 공평성, 상호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규범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호성과 결속은 신뢰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연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시설오이 생산자는 중간상인과 거래관계에서 특히 상호성 즉, 서로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한 만큼 이득과 혜택을 받으며, 더러 손해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공평하게 되는 것 등이 신뢰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서로 좋은 관계유지를 원하고, 협력을 중시하며, 평소 관계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 결속이 상호 신뢰구축에 중요하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설오이 생산자와 중간상인은 상호 긴밀한 관계유지, 상대방에 대한 믿음, 대등한 관계유지, 유통문제에 대한 의견일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뢰는 관계적 규범 가운데 특히, 상호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 체소 유통 문제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시설오이의 경우 다른 체소와 비교하여 도매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질서가 잡혀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제도의 정착, 생산자와 특히 중간상인의 상거래에 대한 인식 및 견전한 상관습의 정착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유통문제는 경로 당사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정부의 적절한 농산물유통정책의 수립과 지원,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유통에서 역할제고가 요구된다.

## 2. 연구결과의 의의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학문적인 의의를 들 수 있다.

첫째, 농산물유통경로 관계연구에서 신뢰의 중요성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유통경로 연구는 신뢰를 주로 관계의 질에 대한 하부차원이나 신뢰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뢰가 경로쌍방의 관계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한 것과 더불어 신뢰의 선행변수로서 관계적 규범이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둘째, 경로쌍방관계 연구에서 관계적 규범의 선행변수로 환경을 도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유통경로의 환경차원 중에서 수요부문 환경의 풍요성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관계적 교환이론의 연장선에서 경로환경과 관계적 규범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관계적 규범은 단일 차원이라기보다는 세부적인 하부차원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규범은 두 개의 하부차원 즉, 상호성과 결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배정아(1994)의 연구에서도 그 차원이 상호성과 결속으로 구분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농산물유통경로에서 환경의 풍요성과 관계적 규범, 그리고 신뢰를 연결하여 이 변수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산물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관계적 규범가운데 특히 상호성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농산물유통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계획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농산물유통에서 경로쌍방의 과업환경, 관계적 규범,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됨으로써 농산물유통 담당자들이 경로관리에 행동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농산물 생산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관계적 규범개발과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 외에도 농산물유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농산물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 다음과 같은 역할제고가 요구된다.

먼저 정부의 농산물유통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유통참가자들을 지원하고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견제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의 확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역할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농산물유통량에 비하여 도매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도매시장의 확대건립과 함께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이들에게 공정한 과세와 정상적인 상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산물수입개방 확대 및 유통시장개방에 대응한 도매시장기능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도매시장 거래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도매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나가야 하며, 또한 경매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래방법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기타, 고소득 예상작목에 대한 생산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소위 홍수출하와 단경기를 조절하는 생산 및 출하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유통정보의 수집과 분산의 일관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유통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작목반의 중점육성이 필요하다. 산지농협 관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공동출하 확대를 통하여 시장에서 협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는 중간상인도 소량 출하자보다 대량 출하자를 선호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작목반의 양적 확대보다 우수한 작목반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산지의 물적유통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선별, 등급, 규격화 및 포장 등은 경매제도 정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므로 이를 위한 시설의 확대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운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도 요구된다. 셋째,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요청된다. 소위 얼굴있는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중간상인의 불신해소는 물론 소비자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생산자의 인적사항 표시에 의한 상품에 대한 책임과 보증은 신뢰화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농협공판장의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농협공판장이 중간상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판장에 대한 과감한 물적·인적 투자가 요구된다. 공판장의 각종 시설 확충, 적극적인 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유통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은 농협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3.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는 경로쌍방의 관계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경로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오이 생산자 한 편에서만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오이 유통경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전체 농산물유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표본추출방법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설오이 생산자의 표본프레임 작성은 불가능함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에 편의가 내재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환경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쟁환경은 본 연구과정에서 중요한 환경특성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농림수산부(1992), 「체소류 주산단지 지정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92-35」.
- 농촌진흥청(1993), 「'92 주요채소의 작황별 생산과 수익성 비교」.
- 농협대학(1988-1993), 「시설채소 생산기술교육 수료자현황」.
- 농협중앙회(1991), 「작목반종람」, 유통자료 '91-제1집.
- \_\_\_\_\_ (1993), 「'92 농산물 출하가능량 조사자료」.
- 박종희(1991), 프랜차이즈 경로상에서의 환경의 동태성, 경로간의 경쟁 및 경로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 배정아(1994), 지속적인 거래관계 속에서의 관계적 규범의 측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소만호(1993) “상장경매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제10 권 제1호, 한국식품유통학회, 87-102.
- 이 순묵(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Achrol, Ravi Singh(1991), “Evolution of the Marketing Organization : New Forms for Turbulent Environments,” *Journal of Marketing*, 55(October), 77-93.
- Aldrich, Howard E.(1979),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Anderson, Erin and Barton Weitz(1990), “Determinants of Continuity in Conventional Industrial Channel Dyads,” *Marketing Science*, 8(Fall), 310-323.
- Anderson, James C. and David W. Gerbing(1984), “The Effect of Sampling Error on Converge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49(June), 166-173.
- \_\_\_\_\_ and James A. Narus(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54(January), 42-58.
- Bagozzi, Richard P.(199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 A Comment,” *Journal of Marketing*, 81(August), 375-381.
- Bentler, P. M. and Douglas Bonett(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33(May), 588-606.
- Boomsma, A.(1982), The Robustness of LISREL against Small Sample Sizes in Factor Analysis Models. In K. G. Jöreskog and H. Wold(Eds.), *Systems under Indirect Observation : Causality, Structure, Prediction*(Part 1, 149-173). Amsterdam : North-Holland.

- Dwyer, F. Robert and M. Ann Welsh(1985), "Environmental Relationships of the Internal Political Economy of Marketing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November), 397-414.
- \_\_\_\_\_, and Sejo Oh(1987), "Output Sector Munificence Effects on the Internal Political Economy of Marketing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November), 347-358.
- \_\_\_\_\_, Paul H. Schurr, and Sejo Oh(1987), "Developing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1(April), 11-27.
- Heide, Jan B. and George John(1992), "Do Norms Matter in Marke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6(April), 32-44.
- James, Lawrence R., S. A. Mulaik, and J. M. Brett(1982), *Causal Analysis : Assumptions, Models, and Data*,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Inc.
- John, George(198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me Antecedents of Opportunism in a Marketing Chann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August), 278-289.
- Jurkovich, Ray(1974), "A Core Typology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September), 380-394.
- Jöreskog Karl G. and Dag Sörbom(1988), *LISREL 7.16 :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Second eds., Chicago : SPSS Inc.
- Kaufmann, Patrick J. and Louis W. Stern(1988), "Relational Exchange Norms, Perceptions of Unfairness, and Retained Hostility in Commercial Litig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September), 534-552.
- Macneil, Ian R.(1980), *The New Social Contract : An Inquiry into Modern Contractual Relation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Moorman, Christine, Rohit Deshpandé, and Gerald Zaltman(1993), "Factors Affecting Trust in Market Research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7(January), 81-101.
- Noordewier, Thomas G., George John, and John R. Nevin(1990), "Performance Outcomes of Purchasing Arrangements in Industrial Buyer-Vendo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4(October), 80-93.
- Oh, Sejo, F. Robert Dwyer, and Robert Dahlstrom(1992), "External Influences in Channel Relationships : Lessons from a Negotiation Lab," *Advances in Distribution Channel Research*, 1, 187-213.
- Pfeffer, Jeffrey and Gerald R. Salancik(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and Row.

- Pruitt, Dean G.(1981), *Negotiation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Inc.
- Schurr, Paul H. and Julie L. Ozanne(1985), "Influence on Exchange Processes : Buyers' Preconceptions of a Seller's Trustworthiness and Bargaining Toughn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March), 939-953.
- Shapiro, Susan P.(1987), "The Social Control of Impersonal Trus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November), 623-658.
- Silvia, S.(1988), "Effects of Sampling Error and Model Misspecification on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Sullivan, Jeremiah and Richard B. Peterson(1982), "Factors Associated with Trust in Japanese-American Joint Ventur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2(2), 30-40.
- Young, Louis C. and Ian F. Wilkinson(1989), "The Role of Trust and Cooperation in Marketing Channels : A Preliminary Study,"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3(2), 109-122.
- Zand, Dale E.(1972), "Trust and Managerial Problem Solv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17(2), 229-239.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rust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distributor, focusing on relational norms (mutuality, flexibility, and solidarity) and environmental munificence, in agricultural marketing channels. More specifically, followings are investigated in cucumber marketing channels ; (a)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munificence on relational norms, and (b) the effects of relational norms on tru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cucumber producers' perceived output sector munificence positively affected the mutuality and solidarity of the relational norms. (2) The mutuality and solidarity of the relational norms positively affected the trust.

Therefore, the efficient marketing transaction system, mutual efforts for a fair regard between producers and middlemen, and the development of sound moral and trading custom are required in the Korean agricultural market. And also the active roles of government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 of agricultural marketing and the proper rol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keep transaction activity fair should be clarified and proactively conducted.